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9월 13일 ( 제1375호 )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 믿음을 보시는 주님

해외집회 때면 나는 자주 몇몇 사람을 단에 올린 후 마이크를 뱉 불 받고 파는 퍼포먼스를 한다. 그리고 말한다.

“이 마이크를 팔 때 나는 이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 다. 이 사람이 박사인지, 교수인지, 이 사람이 아름답고 잘생겼는지, 남잔지, 여잔지, 그런 거 안 봤습니 다. 나는 오직 돈만 보고 마이크를 팔았습니 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외모나 조건, 환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만 보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십니 다.”

그렇다. 장사꾼이 돈만 보고 물건을 팔 듯,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을 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며 ‘믿음을 보이라’고 하신다.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곁에 가려고 했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다가갈 수 없었다. 그러자 지붕을 뚫고 병든 친구를 달아 아래로 내려보냈더니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5장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거란 믿음이 그 녀에게 있었다. 이를 보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막5:34)라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갈팡질팡하지 않는가?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자 베드로도 걸겠다고 했고, 주님은 오라 하셨다.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걸었다. 그런데 풍랑을 보니 덜컥 겁이 났다. 현실을 본 것이다. 그러자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드신 후에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마14:31).

우리도 처음에는 ‘할 수 있어. 믿음이야.’하다가 힘든 환경, 어려운 문제를 보는 순간 급격히 침묵에 빠진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거센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네가 문제야.”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자가 되라.

#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라

지난 4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는 이 초석 목사님 초청 전도집회가 있었다. 이는 배방, 천안, 아산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한 것으로, 이순신체육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는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룬 빌라델교회를 연상케 했다.

목사님은 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라!’는 주제로 설교하셨다.

“여러분, 여기는 이순신체육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믿습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예수님도 2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 본 자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고, 우리는 그 기록인 성경을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병에서,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분은 마구간에서 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까지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고후 8:9).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완전히 놓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라고 이렇게 큰 잔치를 연 것입니다.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2026년 9월 4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이초석 목사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움직이는 걸 보고 알지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지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고쳐줬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부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세계로 나가 이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



통해 예수를 배웠습니 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때 그 시절 역사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죄와 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은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놈이 마귀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꼼짝없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

없느니라”(요14:6).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딘데요? 천국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천국과 정반대 길, 곧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휴~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하시는 분들,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 지옥이 그만큼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에는 지옥이 눈을 빼는 고통보다, 손을 자르는 고통보다 훨씬 고통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예수를 믿어 꼭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

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병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할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세요. 오늘 역사가 일어났니 다. 이 역사를 보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셨고,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다. 이 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목도한 많은 자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계속 전국적으로 예수를 전하자.

송헌혜



배방, 천안, 아산교회가 연합하여 전도한 결과다



아산 이순신체육관으로 몰려오는 성도들



설교 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다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겔3:17~21)

#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우리를 무시한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겔33:7).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듯이, 같은 중차대한 사명을 저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도 불구하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인이 경계에 실패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기업이 경계에 실패하면 기밀문서가 유출되기에 죽 썩서 개 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경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책임 소지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겔33:6).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 이제 제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저만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파수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천국을 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되어 줄래?’ 사정하신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피 값을 운운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심지어 원수도, 악인도요.

“악인도요? 그들은 마땅히 지옥가야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악인까지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겔33:11).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했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어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가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줄행랑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 사흘 동안 가둬 이리저리 굴리셨고,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나는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욥3:4)라고 아주 살살, 아주 작게, 단 하루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팔 소리에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외침으로 니느웨가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서 외칠꼬?” “누가 나팔을 불꼬?” 그때 요나처럼 도망

치면 안 됩니다. 못 들은 척해도 안 됩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사6:8)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악으로 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깨우쳐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겔3:17).

우리는 요즘 국내 집회를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다. “동원해서 하는 사람 중 몇 명이나 교회에 나오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 할 일은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저들의 몫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 성 경 은 말씀 합니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겔33:8~9).

노아의 시대에도 경고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 방주를 준비하면서 다가를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임하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을.

아산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했다면, 여러분은 파수꾼, 나팔수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었으니 됐습니다. 이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

나님이십니다(고전3:7~8).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1~2). 그래서 저는 예식장에서도, 심지어 목욕탕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 파수꾼이 잠들면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여러분, 피 값을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나팔수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가 있지만, 잘 이행하면 상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했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5:4).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겁니다. 목적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이고,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눅19:10).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25:21)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게 됨을,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전하십시오.

10월 9일,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 집회가 있습니다. 상을 쌓을 기회입니다. 전해야 들립니다. 알려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복된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나팔을 크게 불어봅시다.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찌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사52:7~8).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경배와 찬양 ::

## 깨어있으라

얼마 전 최전방 G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장병들이 오발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빈총을 들고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경계 근무는 초소에 서 있는 모양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기를 갖추고 깨어있는 것이 참된 경계입니다. 총이 비어있다면 그 경계는 허수아비를 세워둔 것과 같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신앙인의 외형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았다면 영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은 신앙은 실탄 없는 빈총과 같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시험과 유혹 앞에서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틈을 노립니다. 기도가 멈추고 말씀이 멀어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경계 태세를 늦추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큰 시험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과 무관심, 반복되는 불평과 미움, 은밀한 고만을 통해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군인이 전투에 대비해 무기를 점검하듯 성도도 날마다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인간의 의지나 세상의 지혜

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호흡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죄와 유혹을 이기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품을 힘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속적인 삶입니다. 아침을 기도로 열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죄를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날짜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충성된 경계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 빛과 소금 ::

##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

얼마 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헤아리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필요와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는 않았을까.

나에게는 세 살 터울의 두 아이가 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싶을 만큼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참 다르다. 그래서 매일 티격태격하다가도 신나게 놀고 웃다가 울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가 가장 미소 짓고 감동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해주며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하

나 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려면 내가 몸을 숙여 자세를 낮춰야 아이와 눈높이가 맞는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저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기에 서로를 향한 판단보다 긍휼이 필요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 물론 쉽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예,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고 싶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쉼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송지혜 집사

## 하나의 그림을 위한 조각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그림의 퍼즐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맞추려면 그 그림의 조각들로 맞춰나가야 퍼즐이 완성됩니다. 아무리 여러 조각이 섞여 있어도 그 그림의 조각들이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림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조각이 한 그림의 조각이 아니라 여러 그림의 조각으로 되어 있다면 절대 퍼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조각 숫자가 맞아도 절대 그 그림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퍼즐은 아무 조각이나 있다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맞는 조각이 있을 때 그 그림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일관된 그림으로 퍼즐을 맞춰야 하듯, 삶에도 일관된 목표가 있어야 그 삶이 완성됩니다. 목표가 왔다 갔다 하거나 삶의 기준이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면 절대 어떤 목표도, 어떤 삶의 완성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일관

된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2100년을 바라보고 뛰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목회를 시작하신 후로 지금까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뛰셨기 때문에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그 조각들을 맞춰오고 계십니다. 그 퍼즐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실까요. 너무나 외닿는 목사님의 흥잔 언입니다.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하라.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서 멀어진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구호를 외치는데, 이는 무작정이 아니라 ‘무엇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그림의 조각을 맞춰가는 우리 예수중심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윤에녹 전도사



:: 소망의 언덕 ::

## 포기는 자살이다

“포기는 자살 행위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강단에서 온 힘을 다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외침을 마주할 때마다 고(故) 정주영 회장의 저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에 나오는 버드나무 개구리 일화가 깊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술한 사업 실패를 겪고 고향으로 돌아와 힘겹게 농사 일을 하던 정 회장은 비 내리는 논둑 곁에 지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빗물에 미끄러져 떨어지면서도 버드나무 잎을 향해 씩 웃으며 뛰어오르는 작은 개구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고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서른 번이 넘는 도약 끝에 나뭇가지 위로 올라섰습니다. 저 미물조차 포기하지 않고 끝내 뜻을 이루는데, 하물며 인간이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는 그 불굴의 깨달음은 훗날 술한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꾼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마주한 현실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발걸음을 멈추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후

퇴란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와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행보는 이미 기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불굴의 기도로 물꼬를 튼 대구와 전주, 그리고 소수의 성도들이 온몸과 온 마음으로 매달려 3천 명이 모이는 거룩한 축제를 일궈낸 군산 집회의 감격은 여전히 우리 심장을 뛰게 합니다. 4월 배방, 아산, 천안 세 지역 교회가 한뜻으로 연합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모습 역시, 복음은 시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과 기도입니다. 내가 딛고 선 그 척박한 땅부터 기를 지게 일구어 나갑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도약이 마침내 이 땅에 거대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이현승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 그까짓 체면이 뭐라고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어 병을 고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는데 발가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뭐가 대수랴. 나라면 곧장 들어가지. 나아만은 강대국 아람의 군대를 지휘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유능한 장군이었고,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권력도, 명예도, 재력도 모두 가진 그가 나병에 걸린 겁니다. 돈이나 권위로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말이지요.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를 가지고요. 오늘날 시세로 계산하면 150억 원입니다. 거액을 들고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한 그가 받은 처방은 황당무계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여러분이라면 요단강에 들어가시겠어요? 이래 뻔도 내가 고위 장군인데, 나아만이 분노하여 그냥 떠나려 하자 그의 종들이 만류하며 아뢰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

까”(왕하5:13). 깨달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진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졌죠. 8월 첫째 주에 저는 기도원 산상집회에 갔습니다. 저녁 예배 때 멕시코에서 오신 엠마누엘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어떤 여자가 손을 번쩍 들고 소리치면서 강대상 앞에서부터 맨 뒷자리까지 뛰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뛰어왔다가 다시 맨 뒷자리까지 뛰어갔다가 앞으로 뛰어오기를 다섯 번이나 반복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상하고 남스러운 행동이었죠. “성도님, 지금 뭐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라고 한 겁니다. 자녀가 다섯인데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그 기도대로 다섯 자녀가 모두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곱 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 지르기. 남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얼마나 남부끄러운가요. 그런데, 남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원에서 이

설교를 하시며 엠마누엘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기뻐 소리치라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요. 저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에서 박수 치며 아멘만 외칠 뿐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그렇지만 너무 창피하더군요. 엠마누엘 목사님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함성을 지르며 뛰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손을 번쩍 들고 발을 떼어 좌에서 우로 뛰었습니다. 마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맨 뒷자리에서 맨 앞자리까지 뛰었습니다. 발개진 얼굴로 함성을 지르며 뛰었습니다. 성전을 뛰는 동안 저는 나아만 장군처럼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프라이드, 선후배에게 받는 인정과 존경, 견고한 자아와 나를 감싸고 있는 품위까지 전부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고 낮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앞인데 그까짓 체면이 뭐라고요. 이런 자녀를 보신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혜

### 마음속 여백

내 마음이 기쁠 때면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다  
내 마음이 기쁠 때면  
어두워도 좋고 청명해도 좋다  
내 마음이 기쁠 때면  
세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듯 기분이 좋다



아~ 왜 이럴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제야 알 듯 하다

아~ 내 인생

미완성인 그림 속에 아직 여백이 있으니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리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리라 - 봉우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사르트르의 『달린 방』이라는 희곡에서 유래한 말로, 동명의 웹툰과 드라마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타인 자체가 나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휘둘릴 때 타인과의 관계가 곧 나를 갉아먹는 지옥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할 때 생깁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없다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련회 때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성경에서 기적을 맞본 인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삭개오, 수로보니게 여인, 중풍병자의 친구 등등이요.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오르는 장면은, 오늘날로 치면 정장을 입은 고위 공무원이 유명 인사를 보러 인파들 사이에서 담장 위로 올라간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의식하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썼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베다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제자들 앞에서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로 닦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적 관습을 고려해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에게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자유합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 앞에서 아랫바지가 흘러내리든 말든 자유롭게 춤을 췄습니다.

저 역시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며,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제 본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체면을 내려놓고 조금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땐, ‘어린이와 같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할 때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소희

###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용기

용서에 관한 두 말씀 앞에 섰다. 하나는 용서하라는, 다른 하나는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이었다. 같은 용서지만 내게는 무게가 달랐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낮아져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무거웠다.

나는 한 선배에게 빚을 졌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선배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말씀은 내 체면을 내려놓게 했고, 빛 가운데로 나가게 했다. 잠언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고 말한다(잠28:13).

내가 고백을 미룬 것은 죄책감보다 수치심 때문이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 말하지만, 수치심은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속삭인다. 그 속삭임이 회개 대신 은폐를, 정직 대신 도피를 택하게 한다. 잠시 모른 채 하면 편해 보이지만,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지연된 안도감일 뿐이다.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마18)를 묵상하며, 나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용서를 구하면서도, 정작 사람 앞에서는 작은 빛 하나 내려놓지 못했다. 탕감받은 은혜의 크기를 잊었기에, 용서하라는 말씀은 가볍게,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은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실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음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를 부끄러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요일1:9). 잘못을 자백하는 것은 깨끗함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회개는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길이다.

숨김은 해결이 아니며, 침묵은 화목이 아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나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두렵고 무겁지만, 내가 빛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주님은 그 자리를 정죄로만 남겨두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 그 끝에는 아버지의 품과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숨기기보다 자복하고, 미루기보다 바로 실천하며, 체면보다 화목을 택한다. 믿음의 용기로, 내가 상처 입힌 자리 앞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서고자 한다.

양은정 전도사

## 청주 전도집회

날짜: 2026년 10월 9일(금)  
오후 2시

장소: 무심천 체육공원  
문의: 02. 533. 9191